

## 5월 야구장 관중 대폭발

다시 무등야구장이 뜨겁다. KIA의 폭발적인 '5월 공세'에 힘입어 지난 2009년 타이거즈의 V10 이후 한동안 시들했던 야구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평일인 지난 18일 무등야구장 1만 2500석은 발디딜 틈이 없이 꽉 찼다. 19일 LG 트윈스와 6차전에서도 1만 타이거즈팬들은 관람석을 가득 채웠다. 평균 관중은 지난해 6500명에서 8500명으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9차례 매진되는데 그쳤지만 시즌 30%가량을 소화한 올해는 벌써 4차례나 만원 사례를 기록했다.

무등경기장 경기당 평균 2000명 늘어  
가족·직장 동료 중심 관람문화도 진화

시즌 초반 터득거리던 호랑이들이 경기마다 명승부를 펼치면서 관중 몰이에 성공했다. 가는 곳마다 야구 예기로 붐비고, 올드팬은 물론 초동학생이나 여성들까지 전문가처럼 야구를 얘기한다.

지역 경기의 침체로 고달픈 호남인들이 야구장에서 위로를 받고, 심신을 충전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올해는 야구장을 이용한 가족·동료 간의 정 나누기, 휴식이 두드러진다.

무등야구장 K7 가족석(4인 기준)의 주말 요금은 13만2000원으로 일반석(2만8000원)보다 5배나 비싸다. 하지만 항상 예매가 가장 먼저 끝난다. 준비해온 음식을 먹고 편하게 야구를 즐기면서 가족애를 돈독히 할 수 있어서다.

직장인들 사이에 '야구장 회식', '야구장 휴가'도 하나의 일상이 됐다. 야구 열기에 편승한 연인

들의 '프러포즈', 백화점·병원 등의 '마케팅'은 이미 클래식이다. 베타이 부대와 중장년층 부부의 관람 모습도 흔하다. 여성 관중도 크게 늘었다.

야구장을 찾은 이들은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화내며, 소통하고 휴식하고 사랑을 나눈다.

원정 응원도 예사다. 지난 주말 롯데와의 원정경기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400여명의 KIA팬들이 사자구장을 달구며 롯데팬들과 어울렸다. '응원 갈등'이 다소 거칠긴 하지만 긴장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KIA 관계자는 "명품 경기가 많아질수록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면서 "예전의 환율이 응원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일상에 지친 심신을 위로하려는 팬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9일 광주 무등야구장을 가득 채운 1만여 관중이 KIA 타이거즈와 LG트윈스의 경기를 보면서 열광적인 응원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과학벨트 광주유치 무산 후폭풍

# 평동 軍훈련장 이전 차질

장성군 "이젠 사정 달라져 못 받겠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본원 광주 유치가 무산되면서 광주시가 전남도와 등과 대체부지 논의 없이 과학벨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국방부와 추진한 평동 군 훈련장 이전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군 훈련장 대체부지가 들여설 예정인 장성군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데다 주민 의견수렴이나 협의의 과정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광산구 평동 군 훈련장 이전을 위해 대체부지를 마련해 기부채납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방부가 광산구 평동 박격포 사격장 246만3000㎡와 동백훈련장 412만1000㎡를 광주시에 넘기며 광주시가 장성군 상무대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군 훈련장을 조성해주고 이를

원료한 뒤 비용을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도시공사가 상무대 인근 부지에 들어설 군 훈련장에 대한 설계를 준비하는 등 과학벨트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장성군 측은 "이제 사정이 달라져 못 받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광주시가 과학벨트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땅 값과 교통 접근성 등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평동 군 훈련장을 유력 후보지로 보고 국방부와 서둘러 각서를 체결했지만, 장성군에 들어설 장성군은 물론 전남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학벨트 유치전 당시에는 침묵했던 장성군 등이 유치에 실패하자 군

훈련장 이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이전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담당 국장이 찾아와 일방적으로 설명한 것 이외에 협의한 적이 없다"며 "과학벨트가 걸려 있어 강하게 반대는 안 했지만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와 먼저 협의하고 이후 장성군과도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남도와 협의, 장성군민 대상 의견수렴, 주민 이주 등의 행정적 절차에만 2~3년 걸릴 것이며 그것도 군 훈련장을 이전한다는 합의가 전제됐을 때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평동 박격포 사격장은 지난 1948년 국방부에 징발된 뒤 보병학교와 기계화학교 등 6개 부대가 사용해 왔으며 1995년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하면서 기갑, 포병 사격장은 이전했으나 박격포사격장과 동백훈련장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F1조직위 수익사업 직접 챙긴다

전남도, 정부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전남도의 핵심 현안인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법 개정안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F1대회조직위원회가 직접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대회 개최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게 개정안의 골격이다.

전남도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 개정을 위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조만간 개정 방향이 담긴 법안을 확정된 뒤 6월 임시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F1대회 지원법에는 대회운영 기업인 카보(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가 추진주체로, 수익사업도 카보가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부실한 경기 운영에 조직위원회와 소통 부재까지 겹치면서 '참담한 실패'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올해는 조직위원회가 주도해 준비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전남도는 특히 올해 대회의 경우 마케팅·대회 운영 기능 등을 신설해 운영과 입장권 판매·스폰서십 유치 등 수익사업과 마케팅 프로모션을 주도하면서 개최 및 운영 비용을 직접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개정안에 ▲조직위가 직접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 ▲육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대상에 F1대회 포함 ▲F1대회 개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조직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F1 대회로 발생한 소득을 교육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간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손금(損金)산입 특례 규정 등을 담기로 했다.

전남도는 육외광고사업의 경우 현재 대구육외대회나 인천아시아게임에 대해서는 정부 육외광고사업의 50%, 여수박람회 20% 등을 배분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감안해 반드시 반영돼야하고 개최권료와 중계권료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6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56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오늘 접수 마감  
art.kjmedia.co.kr 062-220-0541

예술작품으로 빛나는 이태리의 정통 명품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MUSEO 뮤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은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쁨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신세계백화점 금호월드  
뮤제오 메리어트 웨딩홀 동성역 동성교차로 상록회관 KB 국민은행 동성동

이태리 명품브랜드 취급사  
점보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지날레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어트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